

보 도 해 명 자 료 (‘19. 3. 21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지열발전을 현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과 연결하는 것은 전혀
사실과 맞지 않음

(서울경제 3.21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)

- ◇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은 2010년에 시작한 사업으로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연결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음
- ◇ 3월 21일 서울경제, <‘신재생 과속’이 포항지진 불렀다> 기사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1. 보도 내용

- 지열발전이 포항지진을 촉발했다는 조사연구단 발표에 대해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 과속이 화를 자초했다고 지적
- 태양광 발전소 산사태 등 태양광, 풍력 등 타 신재생에너지원도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촉발될 가능성 있음

2.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

-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은 2010년에 시작한 사업으로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연결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음
- 현 정부의 ‘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’은 지열발전과 전혀 무관하며, 따라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중단은 同 계획 추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음
 - 앞으로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친환경성, 안전성, 주민수용성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임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이용필 과 장(044-203-5360)
조우신 사무관(044-203-5358)